

[성경공부를 위한 효과적인 언어사용법 2]

말과 관계

김완일 목사 / 1994

인간관계에 있어서 말은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이다. 말은 인간관(人間觀)을 규정하고 그 관계의 질을 결정해 준다. 친절하고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부드럽고 품위있는 말을 사용하지만, 관계가 불편하고 적대관계에 있는 상대에게 인간은 언제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하게 마련이다. 이처럼 말은 인간의 삶은 규정짓고 창조해가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말은 행동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성경공부 현장에서 사용하는 말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깊은 사고력과 품위있는 어휘들을 사용해야 한다. 그래야 상대방의 마음속에 감동을 일으키고 메시지가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메시지의 승리를 의미하는 설득력을 가지려면 깊고 신선한 언어구사력 외에 정연한 논리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좋은 내용의 메시지를 준비하는 노력만큼 그것을 잘 전달하기 위한 표현과 언어사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성경공부 인도자가 말로 전하는 메시지 곧 「의도하는 바」는 상대방에게 의미가 되고, 말을 통하여 자신들의 소유가 되어질 때 비로소 그 가치를 지니게 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인도자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좋은 관계 곧 일체감을 가지게 된다.

인간은 말을 통하여 현실을 창조하는 삶을 형성하고 이러한 삶의 형성을 통하여 그의 사람됨을 이룩한다.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 준다. 성경공부에서 사용하는 인도자의 말이 비판적이고 정죄하는 말일때 사람들은 그를 비판적인 사람으로, 판단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런 인도자에게 사람들은 언제나 거리감과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

성경공부 인도자가 사용하는 말은 자신의 사람됨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도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말의 결점을 다듬어가야 한다. 설교든 성경공부이든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의사전달의 수단인 말에 가장 큰 관심을 두는 일이 필요하다. 인도자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성도들의 삶을 영적, 정신적으로 파괴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인도자의 말에 사랑과 온유함과 고상함이 요청된다.

성경공부는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말로써 가장 설득력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 제한된 시간에 상처받고 무너진 인격들을 치유하고 일으켜 세워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성도들의 파괴된 관계가 회복되고 인도자 자신과 성도와와의 관계도 새롭게 세워지게 된다. 따라서 성경공부 인도자는 사랑과 존경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가장 생명력 있는 말을 선택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와 능력이 요구된다.

(계속)

* 출처 - 은누리신문